

# 가루쌀·술·빵...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쌀 소비 촉진

## 밥이 진심 밥심이 쌀심

### <4>쌀의 변신

해남 해양주조장은 쌀을 원료로 국내 최고가 '해장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매년 해남지역 쌀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로 수확한 쌀(40~50억)로 빛은 6도, 9도, 12도, 18도 막걸리는 명품 막걸리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시중 제품보다 고가임에도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연매출만 100억원에 이르고 해남 대표 관광명소로도 자리잡으면서 매년 2만 5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여수지역 두부과자 전문업체인 쿠키아는 오는 8월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건강식 두부과자를 제작, 시판한다. 지난 2011년부터 콩으로 만든 두부과자를 판매해왔지만 가루쌀 시장 규모를 감안해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새 제품 개발에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지역 가루쌀의 당 함량이 1.6배 높고 점성이 낮아 가공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쌀 수요가 해마다 급감하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가공산업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감소한 쌀 소비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꾀하는 방식과 기능성·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형태로 시장을 관리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략이다.

◇가공산업 활성화로 쌀 수요 발굴=12일(서한국

## 가루쌀 재배면적 전국 40% 달해 해남 기능성 쌀 대표 재배 지역으로

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21개 시·군의 116개 업체가 떡·술·가루쌀·제과제빵·가공밥·곡물 가공 등의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매일 8120t의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전남에서는 여수 딸기모찌, 오곡 누룽지차, 양파·고구마떡, 해남 고구마빵, 담양 쌀 맥주 등 쌀을 원료로 독특한 가공식품을 개발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가루쌀의 경우도 전남 17개 시·군(50곳) 재배면적(3264ha)이 전국 면적(8203ha)의 40%에 이를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이들 업체가 경쟁력을 갖춰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를 확보한다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정부도 국내외 쌀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해 가공용 쌀 소비량을 2022년 57만t에서 2028년 72만t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6조 3000억원(2018년)에서 8조 4000억원(2022년)으로 33.3% 성장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8900만달러에서 1억 8200만달러로 두 배 늘어났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K푸드' 열풍으로 냉동김밥·떡볶이 등 판매가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즉석밥 등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쌀 가공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 올해 초 기본계획과 지원 방침을



전남 쌀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들. 일부 업체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 역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내놓은 바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 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를 17조원, 수출을 4억 달러(5400억원)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간편 가공 밥·죽 ▲도시락·김밥 ▲떡볶이 ▲냉동 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 면 ▲쌀 빵 ▲쌀과자 등을 '쌀 가공산업 10대 유망품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t)를 가루쌀로 전환하는 등 판로 확보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반영,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쌀 음료·쌀 빵 등 쌀 가공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나서는 한편, 10월에는 3000만 원을 들여 '전남 쌀을 이용한 전국 쌀 요리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전남 쌀의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열린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 <전남도 제공>

전남도농업기술원도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지역 업체 50곳을 선정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14곳), 제품화 패키지 지원(1곳) 등을 진행 중이다.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연계, 가루쌀 활용 레시피 개발, 제빵 경진대회 등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기능성 쌀로 차별화=기존 쌀도 고급화·차별화로 변신을 추진 중이다. 건강·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영양 및 기능성분을 강화한 고급품종·친환경·기능성 쌀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수요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전남도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명품 쌀로 인식된다.

해남이 대표적인 기능성 쌀도 차별화로 소비자

입맛을 잡고 있다. 해남의 경우 해양심층수의 미세 알을 활용해 유기농 탄소 치유 농법으로 재배한 기능성 '향암 쌀'을 재배 중이다. 또 혈압·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가비'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쌀인 가비쌀도 수출 전문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식문화 유입에 따른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품종 쌀로 향미쌀(장립종)도 키우고 있다.

친환경 쌀 재배에도 공을 쏟고 있다. 전국 친환경 경벼 인증 면적의 60%가 전남으로, 이 중 유기농 면적은 전국 면적의 7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남 쌀은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쌀 부문에서 올해까지 18년 연속 선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가공업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의 개발, 국내·외 판촉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장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 경제 지표 내수 부진에 악화

### 소매판매액 지수 10분기 연속 감소 광주 건설수주액 전년 동분기 77%↓

광주·전남지역 올해 2분기 경제 지표가 고물가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오랜 기간(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광주·전남 경제가 극심한 내수 침체의 터널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물가 상승률도 지역 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시 수출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7%, 7.4% 감소했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분기에 견줘 2.7% 감소했고, 건설수주액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올 2분기 기준 3491억원

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7.1% 감소했다. 지난 2018년 2분기(-79.9%) 이후 6년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이 253.4%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87.3% 감소했다.

광주시 건설수주액이 급감한 원인으로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신규 건축사업 부진과 더불어 인건비, 자재비 등은 오르면서 건축 마진율이 줄어든 점이 꼽힌다.

전남은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8.6% 늘었고, 수입액은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소비 침체로 서비스업 생산지수(-1.8%), 소매판매(-6.3%) 등이 감소했다.

전남 올 2분기 건설수주액은 1조 7018억원으로 전반적인 건축공사 수주가 늘어나면서 46.9% 증가했다.

공중별로는 건축이 259.3% 늘었고, 토목은 5.1%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남도장터, 추석 용품 반값

### 다음달 18일까지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추석을 앞두고 '최대 50%'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1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일정한 7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남도의 맛과 정성, 남도장터 추석 명절 기획전'을 진행한다.

명절특가 기본 10% 할인혜택에 더해 20% 추가 할인쿠폰을 고객 1인당 5매씩(최대 25만원 할인 한도) 제공한다.

추석 기획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군 상생 기획전', '한가위 바다직송 수산물 기획전' 등과 연계해 최대 50%까지 파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남도장터 설명이다. 단일 품목 2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대량주문 할인을 통해 전체 구매금액의 10%(최대 100만원 한도) 할인도 가능하다.

특별 경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남도장터 인스타그램의 추석 기획전 게시물을 재배포하거나 남도장터 홈페이지에 제품 구매 인증 댓글을 남기면 80명을 추첨해 4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시작

### 29일까지 기프트 행사

### 굴비·한우 등 최대 20% 할인

광주신세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지하 1층 푸드마켓 본매장에서 '신세계 추석맞이 기프트' 행사를 열고,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굴비와 한우, 과일 등 80여종의 경우 최대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수산물 선물세트 대표 상품인 '수협 특선굴비다복'을 사전예약으로 구매할 경우 최대 할인을 적용하며 '신세계 은갈치'의 경우 10% 이상 할인된 16만원에 판매한다.

과일류로는 '순수 사과, 배 세트', '샤인머스캣', '셀렉트fram 사과배 혼합 오복' 등을 선보인다. 특히 셀렉트fram 상품의 경우 산지부터 유통까지 직접 관리한 뒤 납품한다.

또 호두, 마카다미아, 피칸, 볶음아몬드, 볶음캐슈넛로 구성된 '리치팝넛트 5종세트'와 '아랍 꽃

감세트', '만전공향돌김 2호', '신세계 압소 한우 오복' 등은 선착순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RM 프라이빗 세트', '투렌즈엔젤스슈어+섹시서비스 세트' 등 와인류는 50% 할인가로 판매한다.

이 외에도 '홍삼정투플러스(240g)', '산양유 초유 단백질분말(6입세트)' 등 건강식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8.30 (+29.87)
↑ 코스닥	772.72 (+8.29)
↑ 금리(국고채 3년)	2.946 (+0.005)
↑ 환율(USD)	1370.00 (+5.40)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